

중앙일보

[영상] LG, 롤다운 TV 첫 공개...화면이 커튼처럼 내려온다

기사입력 2020-01-07 10:25 최종수정 2020-01-07 11:38



CES 2020을 하루 앞둔 6일(현지시간) LG디스플레이가 롤-다운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.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롤-업 디스플레이의 후속작이다. 언론에 미리 공개한 전시관에선 롤-다운과 롤-업 디스플레이 TV 각각 10대가 위와 아래로 설치돼 음악에 맞춰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.

LG전자에 따르면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5만번 이상의 롤-업 또는 다운 테스트를 거쳐 완성됐다. 만약 하루에 8번 작동을 한다면 17년간 사용해도 끄떡없다는 뜻이다. 먼저 공개됐던 롤-업 디스플레이 65인치 TV는 올해 안에 시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.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“가격이나 출시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”고 말했다.

장주영 기자 jang.jooyoung@joongang.co.kr

- ▶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? 먼지알지!
- ▶ 중앙일보 '홈페이지' / '페이스북' 친구추가

©중앙일보(<https://joongang.co.kr>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5&aid=0002965899>